

7강 서신서 속의 어리석은 질문에 성경이 답하다 2

[오늘의 어리석은 질문]

1. 어머니 하나님을 뜻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4:26)
2.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 수 있다고?(데살로니가전서 5:4)

☺ 어리석은 질문1. 어머니 하나님을 뜻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26

💡 우리의 질문

1. 갈라디아서에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2.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머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3. 창세기 1:26-27의 ‘하나님(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인 것과, ‘우리’라고 하는 표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어머니 하나님의 형상이다?
4. 요한계시록 22:17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신부’가 어머니 하나님을 의미하는가?

📖 성경의 답

1. 갈라디아서 4:21~5:1의 문맥에서, 성경 전체에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다.
율법과 은혜를 잘 설명하기 위해 두 여인,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하갈 -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들(지금 있는 예루살렘, 종 노릇)
사라 -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은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들(위에 있는 예루살렘(교회), 자유자)
∴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2.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6-27
3.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17

- ❖ 갈라디아서 문맥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다. 갈라디아서의 문맥 속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엘로힘, 복수형), 우리라는 표현은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 ❖ 요한계시록의 신부는 역시 어린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 어리석은 질문2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 수 있다고?(데살로니가전서 5: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살후 4:5

💡 우리의 질문

1. 위 말씀이 예수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는 말인가?
2.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의 다른 번역은 어떤가?
3. “어둠에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말인가?

📖 성경의 답

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사도행전 1:7, 새번역)
2.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갑자기, 기습적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씌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데살로가전서 5:1-9, 새번역)
3.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36-44, 새번역)

❖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표현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기습적으로 덮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빛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기습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품고 준비하는 자세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겠다.

[다음 강의 : 계시록 속에 어리석은 질문에 성경이 답하다 1]

- ☹️ 어리석은 질문1. 요한계시록은 밧모섬에서 쓴 예언서지, 서신서가 아니야.
- ☹️ 어리석은 질문2. 혹시 하늘나라에 장로님이 몇 분 있는지 아니?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 ☹️ 어리석은 질문3. 666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니?